

## 중, 홍콩 보안법 발효 ... 미 “특별대우 박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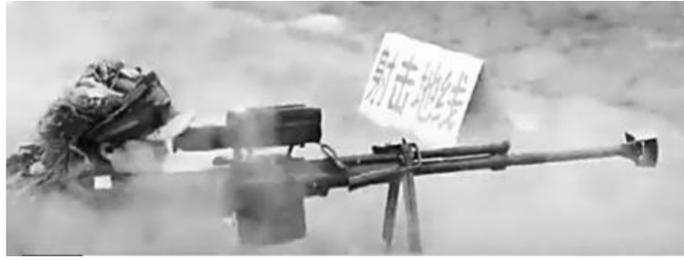
홍콩 보안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미국은 홍콩을 더 이상 특별대우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1일 'MBC'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전날 162명 만장일치로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통과 당일 밤 11시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초안 검토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처리를 한 데 이어 초고속으로 발효한 것이다.

법안의 핵심은 중국의 사법 질서를 홍콩으로 전면 확대 홍콩 내 반중국 세력을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 발효에 따라 이후로 홍콩 시위의 주요 구호였던 '홍콩 독립' '광복 홍콩' 같은 주장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과격 시위는 '테러 활동'으로 분류된다. 더욱이 보안법을 위반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법 통과를 앞둔 중국 인민 해방군 기관지는 홍콩에 주둔하는 중국군 저격수들이 실탄 훈련을 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홍콩을 상대로 확실한 경고의 신호를 보낸 셈이다.



▲ 중국 인민 해방군 기관지가 홍콩보안법 통과를 앞두고 홍콩에 주둔하는 중국군 저격수들이 실탄 훈련을 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사진=MBC뉴스 캡처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을 선언하며 중국 제재를 천명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베이징은 이제 홍콩을 ‘한국가, 한 체제’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군사장비를 홍콩에 더 이상 수출하지 않고, 국방이나 상업에 함께 쓰일 수 있는 기술에 대해 중국과 같은 제한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중싱통신을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공식 지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이 이들 회사로부터 장비를 사들이기 위해 정부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 범죄 조직 격전지 된 멕시코 과나후아토

멕시코 중부 과나후아토주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지난 10년간 멕시코 32개 주 가운데 가장 큰 경제성장을 이룬 주였다. 그러나 과나후아토주엔 최근 ‘멕시코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나후아토주 이라푸아토의 마약 치료시설에서 이틀 전 최대 규모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이곳에서 연이어 발생한 살인사건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것이었다. 이로 인해 28명이 숨졌다.

이라푸아토에선 지난달 6일에도 또 다른 마약 치료시설에서 총격이 발생해 10명이 숨졌다. 인구 550만명의 과나후아토에선 최근 1~2년 새 강력범죄가 급증했다.

과나후아토는 지난해 멕시코에서 가장 많은 살인사건이 발생한 주였다. 현지 매체 아니말폴 리티코에 따르면 2016년 1천96건이던 과나후아토의 살인사건이 지난해 3천54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살인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6월 한 달 동안에만 339명이 피살됐다. 하루 10명꼴이 넘는다. 과나후아토를 피비린내 나는 곳으로 만든 것은 범죄조직들이다. 마약 치료시설엔 거리 마약상들이 라이벌 조직의 공격을 피해 피신하는 경우가 많아 종종 공격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나후아토엔 셀라야와 이라푸아토 등에 근거지를 둔 두 개의 강력한 마약 카르텔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마약밀매뿐만 아니라 파이프라인에서 연료를 훔치거나 상인들을 갈취하는 일도 일삼는다. 또 두 조직은 조직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군경과의 싸움도 더해졌다. 이곳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중엔 경찰을 겨냥한 사건도 다수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2일 기자회견에서 “과나후아토를 버리지 않겠다. 군경을 동원해 주민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과나후아토 사법기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지구촌 곳곳 ‘메뚜기떼’ 창궐 공포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세계에 확산해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와중에 메뚜기떼까지 창궐해 지구촌 곳곳을 위협하고 있다.



▲ 브라질 곡창지대를 뒤덮은 메뚜기떼. 사진=유튜브 캡처

지난 30일 '서울신문'이 영국 BBC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파라과이에서 발원한 메뚜기떼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곡창지대로 밀려들고 있다. 마치 거대한 구름처럼 보인다고 묘사될 정도로 공포를 안기는 메뚜기떼는 하루에 150km를 이동하며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미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 일부 지역의 옥수수과 사탕수수 농가는 큰 피해를 입었다. 아르헨티나 농식품위생관리청은 “이동하고 있는 메뚜기는 폭 3km, 길이 10km 규모로 하루에 먹어치우는 식량이 소 2000마리, 사람 35만 명이 하루에 먹는 양에 이른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세계적인 농업국가인 브라질의 곡창지대까지 메뚜기떼의 표적이 된 것이다. 이에 브라질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브라질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미국에 이어 세계 2번째로 큰 피해를 받고있어 그야말로 앞친 데 뒷친 격이다.

메뚜기떼 창궐은 앞서 아프리카 동부에서 먼저 시작했다. 지난 3~4월 경 메뚜기떼는 우간다, 소말리아, 케냐 등의 지역을 휩쓸며 농민들이 소중히 가꾸어 놓은 농경지를 초토화시켰다. 이에 현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메뚜기떼가 더 무섭다고 평가했을 정도였다. 이들 메뚜기떼는 아프리카를 넘어 중동을 거쳐 파키스탄과 인도에까지 다달았다. 인도에서는 1993년 대규모 메뚜기떼 창궐 이후로 27년 동안 이번처럼 많은 메뚜기가 나타난 적은 없다.

SC FOOT AND ANKLE CENTER

scfootnankle.com

# 강현국 김상엽 발&발목 전문센터

Southern California Foot and Ankle Center

당뇨 신발  
보험 적용 & 문의 환영

Medi-Cal  
0세부터 20세까지

— 전문 발&발목 질환 진료과목 —

- 발 통증 (Plantar Fasciitis)
- 평발 (Flat Feet)
- 무지외반증 (Bunion)
- 작은발가락 기형 (Hammer toe)
- 당뇨병성 질환 (Diabetic Ulcer, Neuropathy)
- 내성 발톱질환 (Ingrown Toenail, Fungal Toenail)
- 신경종 (Neuroma)

- 발통풍 (Gout Attack)
- 발, 발목 골절 (Foot and Ankle Fracture)
- 사마귀 (Plantar Warts)
- 무좀 (Athlete's Foot)
- 아킬레스 건염 (Achilles Tendonitis)
- 발 성형수술 (Foot Plastic Surgery)
- 소아 안짱다리 교정 (Intoe gait)

**김상엽**  
Sang Kim DP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S  
Medical Education: School of Arizona Podiatric Medicine at Midwestern University  
Residency: Bridgeport Hospital Yale New Haven Health  
Hospital Affiliation: La Palma Intercommunity Hospital, West Anaheim Medical Center

**강현국**  
Hyun Kang DP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S  
Medical Education: School of Podiatric Medicine at Barry University  
Residency: Kendall Regional Medical Center, Trauma Surgery Center  
Hospital Affiliation: La Palma Intercommunity Hospital, West Anaheim Medical Center

★ 레이저 곰팡이 발톱 치료 Special ★

각종 보험 PPO, HMO, Medicare, 저렴한 Cash Plan

LA 월~금 9am-1pm / 2pm-6pm 토 9am-2pm  
OC 월~금 9am-12pm / 1pm-5pm 토 9am-2pm

LA 213)352-1090

520 S. Virgil Ave Suite 105  
Los Angeles CA 90020

OC 714)735-8588

5451 La Palma Ave, Suite 26  
La Palma, CA 90623

FAX 562)249-8443

TALK ID : scfoot  
scfootnankle@gmail.com